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URC 2025 주요내용

URC2025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단순한 복구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현대화를 실현하는 국제 협력의 전환점으로 만들고자 함

① 제4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주요방향

○ 투자 정책의 전환: ‘무상 지원’ 에서 ‘투자과 수익’ 으로 전환

- 우크라이나 정부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추상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명확한 비전과 수익 모델에 기반한 상호 이익의 파트너십을 제안함
- 우크라이나 정부, 세계은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엔이 공동으로 수행한 RDNA4(피해 및 필요 신속 평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총 5,240억 달러의 복구 및 재건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 이러한 막대한 자금 조달에는 국제 민간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자선이 아닌 수익 창출 기회로 제시하고 있음
- 올렉시이 쿨레바(Oleksiy Kuleba) 부총리는 “URC2025는 전시 상황 속에서도 재건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며, 투자자들이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와 신규 프로젝트를 선보일 것” 이라고 밝힘

○ URC2025의 4대 핵심 의제

- 비즈니스 차원
 - 민간 부문 동원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재건 촉진
 -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보안, 금융, 보험, 규제, 노동시장 관련 리스크 완화 방안 논의
- 인적 차원

- 사회 복구 및 인적 자본 회복
- 여성, 청년, 실향민(IDPs), 난민, 참전 용사의 사회 통합 및 포용성 강화
- 지역 및 지방 차원
 - 분권 개혁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건 주도
 - 재정 접근성 확대 및 자치 역량 강화
- EU 차원
 -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제도개혁 추진
 - 단일시장 통합을 통한 장기적 경제·사회 발전 기반 마련

○ ‘현재 투자 가능’ 프로젝트 중심의 접근

- 기존 회의와의 차별성 : 루가노, 런던, 베를린에서 개최된 과거 회의가 ‘재건 필요’에 집중했다면, 로마 회의는 이미 실행 중이거나 즉시 착수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에 중점을 둠
- 전선 지역 투자 강조 : 전선 지역에 투자할 준비가 된 기업들을 위한 명확한 조건과 보장책이 마련되어짐
- 성공 사례 공유
 - 키이우주에서는 75% 이상의 파괴 인프라(약 23,000개 시설)가 복구됨
 - Ukrzaliznytsia(국영철도)는 포격 중에도 평균 92% 정시 운행률을 유지
 - 우크라항구는 농산물 수출을 전시 전 수준(90%)에 근접하게 회복함
 - 단일시장 통합을 통한 장기적 경제·사회 발전 기반 마련

○ 지역사회 중심의 투자 : 공공 및 산업 잠재력 복원

- 지역 기반 프로젝트 발굴 : 이번 회의에는 283개 지역 공동체가 복구·현대화 프로젝트를 제안했으며, 이 중 40%는 전선 지역, 30%는 중부, 30%는 서부 지역으로 구성되어 균형을 도모했음
- 대표 사례 : 수미주의 트로스티아네츠
 - 2022년 점령 당시 약 120백만불 규모의 피해를 입은 도시
 - 병원, 학교, 주택 등의 복구 사례 및 향후 투자 가능한 프로젝트 발표 예정

- 13,000명 수용 규모의 신규 주거단지 개발, 에너지·식품·전자재 산업 프로젝트, 병원 확장(재활치료센터 포함) 등을 포함

○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 제도 정비 및 확대 추진

- 기존 복원에서 현대화로 전환 : 단순한 복원에서 나아가, 에너지 효율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
 - 예 : 파괴된 카호우카 수력발전소 대신 새로운 광역 용수 공급망 구축
- 우선순위 5대 분야
 - 에너지(분산형 발전 및 복원력 강화)
 - 주택(보상 및 신규 건설)
 - 공공 인프라(도로, 병원, 학교, 상하수도 등)
 - 인도적 지뢰 제거
 - 경제 기반 회복
- 법률 제7508호 통과
 - PPP 적용 범위를 의료, 교육, 주택, 교통, 디지털 통신 등으로 확대
 - 타당성 조사 대신 개념서 제출만으로도 소규모 프로젝트 실행 가능
 - 하이브리드 PPP 모델(민간 + 국제기구 자금) 활용 가능
 - 계약종료 후 7년까지 간소화된 절차, 투자자 보호장치 등 도입
- 공공 투자 관리 개혁
 - DREAM 시스템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투명한 프로젝트 공개
 - 모든 프로젝트는 전략적 타당성과 공식적인 분석틀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평가 절차 적용

○ 국제 협력 및 기대 성과

- 도시간 협력 강화
 - “Twinning Across Borders” 이니셔티브를 통해 트로스티아네츠, 슬라부티치, 트루스카베츠, 스타리 삼보르, 롬니, 바라 등 우크라이나 도시들과 이탈리아 도시 간 양해각서(MOU) 체결 예정

- 투자 촉진 기대

-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수십~수백억 달러 규모의 실질 투자 유치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기대함

② 7.10 1일차 발표내용

- 로마에서 개최된 URC2025(Ukraine Recovery Conference 2025)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유럽연합(EU)과 여러 파트너 국가들의 대규모 지원 계획이 발표됨.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복구와 장기적인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고위급 연례행사로, EU의 지원과 우크라이나의 개혁 노력에 초점을 맞춰짐
- 이번 회의에는 약 5,000명의 참가자가 모였으며, 우크라이나와 이탈리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음(기자단 500명 이상 참가)
 - 참가 규모 : 약 100개의 정부 대표단과 금융 기관을 포함한 40개의 국제 기구 대표단이 참여함
 - 주요 연사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연사로 나섬
 - 부대 행사 : 회의장 주변에서는 정치인, 약 2,000개 기업 대표, 지방 당국, 시민 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리며, 수많은 양자 회담도 진행
- 회의 주요 의제 및 프로그램
 - 주요 의제
 - 비즈니스 : 민간 부문의 재건 및 경제 성장 참여
 - 인적 자본 :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한 인적 자원 개발
 - 지역 및 지방 개발 : 지역 사회 및 지방의 재건 노력

- EU 가입 관련 개혁: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개혁 과제 논의
- 문화유산 보호: 분쟁 지역의 문화유산 및 역사적 유적지 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집중
- 첫날 프로그램: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은 이미 전날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하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로마에서 일련의 회담을 가졌고, 우크라이나 장관들은 각국 장관들과 만나 부대 행사에 참여함
- 전시회 개막 : 회의 첫날은 문명 박물관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전시회 개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며,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양국 문화부 장관이 참석함
- 젤렌스키 대통령, 100억 유로 규모 협정 발표 및 드론 투자 촉구
 - 대통령은 총 100억 유로(약 14.8조원)가 넘는 200건의 협정이 서명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
 - 드론 제조 부문 투자 증대 촉구
 - 우크라이나의 당면 과제로 러시아 드론 및 미사일 대응을 꼽으며, 국제 파트너들에게 우크라이나 드론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줄 것을 촉구함
- 젤렌스키 대통령, ‘재건 연합’ 창설 및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촉구
 - 대통령은 회의(URC2025) 참가자들에게 ‘재건 연합(Recovery Coalition)’의 창설을 지지하고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정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촉구
 - ‘마셜 플랜’ 방식 제안: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의 재건과 변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셜 플랜을 언급하며, “우리는 마셜 플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라고 강조
 -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주장: 그는 재건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힘. 단순히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자산 자체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우크라이나군에 찬사 및 국방 산업 지원 강조

- 재건 회의(URC2025) 개막식에서 우크라이나군(AFU)에 대한 찬사를 표하며, 러시아 흑해 함대와 전략 항공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러시아군을 계속 저지하는 등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을 해냈다고 강조함
- 전쟁의 본질 변화: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전쟁이 자원과 경쟁하는 방어 시스템 간의 싸움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하고 자체적인 재무장을 해야 한다고 역설함
- 「Defense Readiness 2030」 위원장은 '국방 준비 태세 2030(Defense Readiness 2030)' 계획에 따라, EU가 유럽 방위 산업을 성장시키고 우크라이나 국방 부문 개발을 돕기 위해 자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재정적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
- 국방 예산 증대 : 유럽 국가들이 GDP의 5%까지 국방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도 포함된다고 덧붙임
- 우크라이나 국방 산업 지원 : 위원장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현재 우크라이나 국방 산업이 60%의 생산 능력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 EU 회원국들이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대출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국방 산업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투스크 폴란드 총리, 우크라이나 재건에 폴란드의 핵심 역할 강조

-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의 첫 번째 모델을 개발했으며, 도로, 물류, 철도에 투자하여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의 90%가 폴란드 운송 회랑을 통해 운송된다고 밝힘
- 회의 목표 : 투스크 총리는 로마에 모인 모두가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돕는 것을 넘어, 승리하고 파괴된 인프라를 재건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고 강조

- 우크라이나 승리의 중요성 : 그는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유럽 전체의 안보 문제이며, 이는 영토 보전, 주권, 그리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의미한다고 역설함. 또한 우크라이나의 승리는 공동의 가치와 집단 안보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재건의 의미 :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단순히 “rebuilding walls” 이상이며,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강조.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중요한 유럽 통합 및 현대화와 같은 병행 과정도 포함된다고 설명

-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 역할

- 폴란드의 기여 :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전쟁”으로 규정하며,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폴란드가 총 250억 유로(약 37조원)에 달하는 군사, 인도적 지원 및 난민 지원을 제공했다고 언급함
- 지원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투자 : 총리는 폴란드 정부가 일관된 지원 모델을 개발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로, 철도, 물류)에 투자했다고 강조했
- 운송 허브 역할 : 현재 우크라이나로 가는 원조의 90%가 폴란드 운송 회랑을 통과하고 있으며, 이 도로들은 미래에 재건 물품을 운송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EU의 우크라이나 수출품 중 30%가 폴란드에서 거쳐온다고 덧붙임
- EU 회원국 기반 마련 :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미래 EU 회원국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강조

○ 유럽 이사회 의장, 우크라이나 미래를 위한 Four Pillars 제시

-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 이사회 의장은 재건 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평화, 국방, 재건, 그리고 유럽연합(EU) 가입을 우크라이나 미래 발전을 위한 네 가지 핵심 기둥(평화, 국방, 재건, EU가입)으로 제시

① 평화

- 러시아의 공격 규탄 : 코스타 의장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하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동원하는 데 대해 찬사를 보냄

- EU의 지원 : 러시아가 더 많은 공격과 고통, 정당화될 수 없는 죽음으로만 응답하고 있다며, “이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 EU는 첫날부터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굳건히 함께 서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힘. 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강화, 그리고 유럽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수단 동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임

② 국방

- 주권 및 경제 회복의 기반 : 의장은 우크라이나의 국방이 군사력 뿐만 아니라 주권과 경제 회복의 기반이라고 강조
- 국방 산업의 역할 : 우크라이나의 국방 부문이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혁신을 주도하여 국가 경제를 강화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
- EU 회원국의 투자 독려 : 그는 EU 회원국들이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방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힘. 이는 우크라이나 재건 시 이러한 기술 발전을 통합하여 국가 발전을 촉진하고 더 넓은 유럽 산업 및 국방 가치 사슬에 포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③ 재건

- 대규모, 장기적 노력 : 의장은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파괴의 정도와 현시점의 시급성에 상응하는 대규모의 장기적인 국제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
- 러시아의 책임 : 러시아는 자신들이 야기한 황폐화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침략자는 파괴하려 했던 것을 재건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

④ EU 가입

- EU의 전략적 투자 : 의장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평화, 안보,

변영에 대한 유럽 연합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정학적 투자”라고 언급

- 우크라이나의 약속 : 동시에 우크라이나에게 가입은 “민주적 가치, 법치, 좋은 거버넌스,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고 설명
- 개혁 진전 : 지난 EU 정상회담에서 지도자들이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이룬 놀라운 개혁 진전”을 인정했다고 언급
- 협상 진전 촉구 : 의장은 “집행위원회의 평가는 명확하며, 우크라이나는 가입 협상의 첫 번째 클러스터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충족하였다고 밝힘. 이제 협상은 계속되어야 하며... 다음 단계는 장점, 추진력, 그리고 상호 약속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결론지음

○ 미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시 대규모 공격 즉각 중단 촉구

- 미국 대통령 특사인 키스 켈로그는 URC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젤렌스키, 트럼프와 패트리엇 대화 공개 및 추가 지원 요청

-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제공에 대해 “긍정적인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요청 내용 :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시스템 10대와 이에 상응하는 미사일 공급을 요청
- 재정 지원 :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이 2대, 노르웨이가 1대 시스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한바, 제조업체와의 최종 합의 후 다른 유럽 파트너들의 추가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임
- 비용과 책임 : 막대한 비용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초기 자금 출처를 확보했고 더 큰 규모의 논의도 진행 중임을 시사

○ 젤렌스키, 러시아 전쟁 장기화 계획 및 국방력 강화·제재 강조

-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을 장기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러시아의 의도 : 대통령은 “우리 정보당국과 파트너들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함. 푸틴이 진정한 휴전 기회를 모두 거부하고 있으며,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음. “푸틴은 전쟁과 살인에 중독되어 있으며, 오직 진정한 힘만이 그가 이 중독을 끊도록 강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국방은 충분히 강해야 한다” 고 강조함
 - 회의 주요 의제 :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오늘 로마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강화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초점을 맞췄음
 - 제재의 확대 :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충분히 강력해야 하며,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돕는 모든 대상” 에게도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강조
 - 국방 자금 조달 :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와 ‘the Coalition of the Willing, 자발적 연합’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국방군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힘. 젤렌스키는 “우리 군인들은 자신감을 느껴야 한다” 며 무기 생산, 특히 드론 제조에 더 많은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우크라이나, 이탈리아와 사이버 역량 강화 협정 체결

-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디지털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선언을 체결
 - 탈린 메커니즘 기여 : 시비하 장관은 이탈리아 외교부가 탈린 메커니즘(Tallinn Mechanism) 프로젝트에 100만 유로를 할당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함. 이는 2024년까지 연장되는 우크라이나-이탈리아 안보 협력 협정을 기반으로 한 조치
 - * 탈린 메커니즘: 2023년에 설립된 탈린 메커니즘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민간 사이버 역량을 조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12개국(미국,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 영국, 우크라이나)과 NATO, EU가 참여하는 협력체임

○ 주요 국제 파트너, 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강력한 지원 약속

- 주요 국제 파트너들은 기부국 회의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추가 지원 의지를 표명. 유럽투자은행(EIB) 총재 나디아 칼비뇨(Nadia Calviño)는 이번 회의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강조함

- 글로벌 파트너들의 확고한 의지

기부국 회의 : URC2025의 일환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기부국 플랫폼 장관급 회의에는 EU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그리고 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세계은행과 같은 다자간 기관의 중요한 파트너들이 참여

강력한 메시지: 칼비뇨 총재는 이 회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과 향후 국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결의에 대한 매우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언급

- 무역 및 투자 증진 이니셔티브 : EIB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하는 주요 프로그램들의 상당한 진전사항을 발표

InvestEU 우크라이나 수출 신용 보증 시설 : 이 프로그램은 원래 3억 유로 규모였으나, 이미 480백만 유로로 초과 청약되어 수출 신용 기관들의 강력한 수요를 반영함

EIB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10개국 수출 신용 기관과 협약을 체결. 이 협약은 이들 국가의 우크라이나 수출 기업에 대한 범유럽적 보증을 제공하여 위험을 줄이고 필수 상품 및 기술의 지속적인 교역을 가능하게 함

칼비뇨 총재는 이 제도가 “민간 부문을 지원하고, 유럽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우크라이나로의 필수 상품 및 기술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강조

- 프로젝트 준비 및 반부패 노력 : EIB는 자금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기존의 반부패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Ukraine FIRST 프로젝트 준비 프로그램 : EBRD 및 유럽위원

회와 협력하여 추진되는 이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우크라이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부패 척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함. 이는 우크라이나 미래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식별, 구상, 준비 및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타당성 조사, 기술 평가, 조달 계획 등을 지원하여 더 빠르고 잘 준비된 인프라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함. 이는 EU의 접근 국가 지원 프로그램인 JASPERS를 기반으로 함

※ EIB는 2007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해 왔으며, 2022년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이후 36억 유로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 중 약 3분의 2가 이미 지급됨

○ 유럽 위원회, 우크라이나와 'BraveTech EU' 이니셔티브 출범 발표

- 유럽 위원회는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통해 전장 기반 기술 활용 및 우크라이나-EU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방위 혁신 개발을 위한 'BraveTech EU'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

BraveTech EU의 목표와 특징

독특한 협력 :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해당 사업이 "유럽 방위 산업이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검증된 경험을 통해 방위 혁신을 배우고, 우크라이나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방위 산업이 유럽 연합의 방위 산업 잠재력을 활용하여 혁신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

플랫폼 통합 : 우크라이나의 방위 기술 플랫폼인 Brave1을 유럽 방위 기금(EDF), EU 방위 혁신 계획(EUDIS)과 같은 EU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첨단 방위 솔루션의 공동 개발, 테스트 및 배치를 위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

'드론 군대'의 성공 : 이니셔티브의 명칭인 'BraveTech EU'는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방위 기술 클러스터이자 '드론 군대' 창설의 기반이 된 Brave1 플랫폼에서 따옴

혁신 생태계 구축 : 쿠빌리우스 집행위원은 EU가 드론 및 기타 현대 전투 장비 생산뿐만 아니라 매우 혁신적인 방위 기술 개발을 위한 완전히 다른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

주요 활동 및 단계별 실행

BraveTech EU의 공동 활동에는 다음이 포함됨

우크라이나 중심의 방위 해커톤

우크라이나 기업과 유럽 기업 및 투자자 간의 매칭

유럽 및 우크라이나 스타트업을 위한 R&D 자금 지원

유럽 방위 기업을 위한 우크라이나 내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 기회 제공

BraveTech EU는 두 단계로 실행

'시드(Seed)' 단계 : 2025년 가을에 시작되며 기존 EDF 활동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방위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을 강화

'스케일 업(Scale Up)' 단계 : 시드 단계의 활동을 확장하며, 향후 유럽 방위 산업 프로그램(EDIP)에 따라 EDF 및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USI)의 추가 자원을 활용

재정 지원 및 목표

유럽 위원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BraveTech EU는 '유럽 방위 백서 - 준비 태세 2030' 및 새로운 'EU-우크라이나 방위 산업 협력 태스크포스'의 목표를 지원

이 이니셔티브는 EU와 우크라이나 방위 생태계를 연계하고, 방위 산업 및 신기술 벤처에 중점을 두어 EU-우크라이나 간 긴밀한 협력의 혁신 잠재력을 활용

초기 활동은 EDF/EUDIS를 통해 지원되며, EDF 사업 프로그램의 조정 제안을 통해 최대 5천만 유로를 동원할 수 있으며, 해당 자금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책정한 5천만 유로와 매칭되어 상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키이우의 유럽연합 방위 혁신 사무소(EUDIO)가 이니셔티브의 활동과 자원을 연계하여 실행을 지원할 예정

BraveTech EU는 방위 혁신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와 EU 모두의 안보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노력이며, 동등한 파트너십 정신으로 EU와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방위 기술을 지원할 것임

○ 벨기에, 우크라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5백만 유로 투자 발표

- 벨기에의 「BIO Invest」가 우크라이나 리비우 은행과 5백만 유로 규모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 해당협정은 URC2025에서 발표한 첫 번째 협정임
- 벨기에 BIO Invest의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 첫 발걸음 : 개발도상국을 위한 벨기에 투자 회사인 BIO 인베스트는 이번 5백만 유로 규모의 리비우 은행과의 협정이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의 첫 걸음이라고 밝힘
 - 지원 목표 : 해당 자금은 우크라이나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SMEs) 지원을 목표로 함. 이는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결속 및 국가 회복력에 중요
 - 향후 투자 계획 : BIO Invest는 향후 몇 년간 재생 에너지, 지속 가능한 농업, 금융 서비스와 같은 핵심 부문에 20백만 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임

○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EU의 주요 지원 약속

- 재정 지원 및 투자 활성화
 - EU는 보증 및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3억 유로 규모의 협정을 체결.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최대 100억 유로의 추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 협정은 주로 에너지, 교통,

제조 등 주요 부문의 대규모 민간 부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Global Reconstruction and Renovation Fund for Ukraine」 글로벌 재건 및 혁신 기금 출범
 - EU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글로벌 재건 및 혁신 기금 출범을 발표함. 초기 자본금 220백만 유로로 시작된 이 기금은 에너지 및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하며, 2026년까지 최소 5억 유로를 동원하여 우크라이나 복구를 지원할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IB 및 EC의 지원 패키지
 - 유럽투자은행(EIB) 그룹과 EC는 주로 EU 보증이 뒷받침된 EIB 대출 형태로 6억 유로 규모의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도입함. 해당 패키지는 주요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자금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중소기업(SMEs)을 지원하며,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는 데 사용됨
- 인프라 및 에너지 재건 프로그램
 - Ukraine FIRST(Infrastructure Project Facility) 펀드_Program Loan : EI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C는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을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 프로그램인 Ukraine FIRST 펀드를 출범. 3천만 유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 펀드는 타당성 조사, 기술 평가 및 조달 계획을 지원하여 인프라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지역 에너지 복원력 강화_EIB Grant Program : EIB는 총 4천만 유로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에너지 복원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 독일 및 EIB의 IKI Fund' s JTR-U program
 - 독일과 EIB는 IKI 기금의 JTR-U 프로그램(IKI Fund' s JTR-U program)을 통해 석탄 의존도가 높은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원하는 데 합의

했으며, 독일은 IKI에 1,960만 유로를 추가로 지원함

※ IKI : 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IKI, 국제기후이니셔티브) : The IKI is a key element of Germany's climate financing and the funding commitments in the framework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경제성장 및 기업지원

- STEP in 2 EU Program : 우크라이나 경제부와 독일 경제부(BMZ), 노르웨이 외교부, EC, 독일국제협력공사(GIZ)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STEP in 2 EU」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5자 의향 선언문에 서명함. 이 이니셔티브는 25백만 유로의 추가 자금을 제공하여 프로그램 총 지원금을 41.5백만 유로로 증액. 추가 자금은 중소기업 지원, 비즈니스 서비스 디지털화 지속, 지역 경제 기관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에 사용됨

- 재건 회의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과 투자를 결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민간 부문 참여와 인프라, 에너지,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둠

<우크라이나 재건 로마 회의(URC2025) 주요 프로그램 및 펀드 요약>

① EU 서명 협정(보증 및 보조금) : 23억 유로

- 목표 : 우크라이나 최대 100억 유로의 추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

② 글로벌 재건 및 혁신 기금(Global Reconstruction and Renovation Fund for Ukraine)

- 초기 자본 : 220백만 유로
- 목표 자금 : 최소 500백만 유로 동원(2026년까지)
- 투자 대상 : 에너지 및 핵심 기술 분야의 기업

③ EIB 그룹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지원 패키지

- 규모 : 600백만 유로(주로 EIB 대출 및 EU 보증)
- 목표 : 핵심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자금 지원, 우크라이나 중소기업(SMEs) 지원, 민간 부문 활성화

④ Ukraine FIRST(Infrastructure Project Facility) 펀드

- 규모 : 30백만 유로
- 목표 :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가속화(타당성 조사, 기술 평가, 조달 계획 지원)

⑤ EIB 확대 보조금 프로그램(지역 에너지 복원력 강화)

- 규모 : 약 40백만 유로
- IKI 기금의 JTR-U 프로그램(독일 및 EIB 협력)
- 목표 : 석탄 의존도가 높은 우크라이나 지역 지원
- 비고 : 독일 추가 지원금.** 19.6백만 유로

⑥ STEP in 2 EU 프로그램

- 규모 : 41.5백만 유로
- 목표 :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 지원(중소기업 지원, 비즈니스 서비스 디지털화, 지역 경제 기관 교육 프로그램 확대)